

시편 제 1 편 강해

복 있는 사람

박 희 천
· 총신대 신대원 교수
· 서울 내수동 교회 담임 목사

시 1:1~3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 준다. 그 사실을 보여 주되, 복 있는 사람의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보여 준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1. 소극적으로는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다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이 죄를 피하고 멀리하는 모습 일곱가지를 보여 준다.

(1) 죄라면 무조건 피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한글 성경으로는 “아니하면, 아니하며, 아니하고”(1)이고, 원문에서는 로-(ㄴ, 아니), 로-(ㄴ, 아니), 로-(ㄴ, 아니)하는 부정어를 세 번 거듭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란, ‘죄’라 하면 무조건 피하고 멀리하려는 결의를 보여 준다. 그렇다. 복 있는 사람이란 ‘죄’라는 말이 나오기가 바쁘게 “아니, 아니, 아니” 하면서 피하고 멀리하는 결의의 사람이다. 그가 죄를 피하고 멀리하는 모습은 마치 화살을 본 새가 질겁을 하고 도망치는 모습과 비슷하다. 화살을 본 새가 무엇을 생각하고 궁리할 여가가 있겠는가. 불문 곡직하고 우선 도망치는 일이 상수다. 복 있는 사람이 죄를 피하는 모습도 그러하다. ‘죄’라는 화살을 본 후에, 무엇을 생각하고 궁리할 여지가 있겠는가. 우선 도망치는 일이 상수가 아닌가. 복 있는 사람은 ‘죄’라는 말이 나오기가 바쁘게 화살을 본 새처럼, “아니, 아니, 아니” 하면서 우선 피하는 사람이다.

1절에,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다고 했는데, 본문에 나오는 ‘악인’은 어떠한 자인가?

- 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4절).
- ②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5절).
- ③ 악인은 망한다고 했다(6절).

그리고 1절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본문에 나오는 죄인은 어떠한 자인가? 5절에서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 가서는 망할 수밖에 없는 악인의 꾀를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좇을 수 있으며,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없는 죄인의 길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설 수 있겠는가. 그러기에 복 있는 사람은 죄라는 말이 나오기만 하면, 화살을 본 새처럼, 불문 곡직하고, “아니, 아니, 아니” 하면서 피할 수밖에 없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죄라면 무조건 피하고 멀리하고 도망치는 사람이다. 잠 14:9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고 했는데, 복 있는 사람은 미련한 자 같이 죄를 심상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 위에서 말씀한 대로 죄라면 무조건 피하는 자다.

(2) 범죄할 만한 계기나 기회가 있어도 죄를 피한다

내용적으로는 범죄할 준비를 다 갖추고 있었으나, 그 준비한 범죄를 실행할 만한 계기나 기회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범죄를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범죄할 만한 계기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안 하는 자이다. 우리가 사는 가운데, 선한 일이고 악한 일이고 마음으로 준비는 다 하고 있었는데, 그 준비를 실행에 옮길 만한 계기나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둘이 있다.

빌 4:10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라는 말씀이 나온다. 무슨 말씀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대접할 생각은 늘 하고 마음과 물질로 준비도 하고 있었으나, 다만 그들의 준비를 실행할 만한 기회가 없어서 못한 것 뿐이다. 비록 결과적으로는 기회가 없어서 못했으나 그들의 마음의 동기와 준비는 하나님께서 벌써 받으셨을 것이다.

이와 같이 악한 일도, 마음속으로 악을 행할 계획과 준비는 다 갖추어 있으나, 그 준비한 악을 실행할 만한 계기나 기회가 없어서 실행 못하는 수가 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 악을 피하는 자세는 그것이 아니다. 마음으로 악을 행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악을 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있다. 악인이 악을 행하자고 꾀인다. 죄인들이 걸어가는 길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 오만한 자의 자리도 벌써 마련되어 있다. 내가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악인의 꾀를 좇을 수 있고, 죄인의 길에 설 수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도 있다. 이러한 계기나 기회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합세 안 하는 자이다. 이 점에서 더 귀하지 않는가.

성경 다른 곳에서도 이 점을 강조한다. 잠 1:10에 “내 아들이야, 악한 자가 너를 꿰지라도 좇지 말라.”고 하였다. 악한 자가 와서 함께 죄를 짓자고 꾀는다. 즉, 범죄할 계기를 제공하며 회유한다. 그럴지라도 너는 그들을 좇지 말라고 한다. 그런데 잠 1:10 이하에 보면 악한 자들이 그저 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꾀에 합세할 의욕이 날 만한 네 가지 이익을 제공하면서 꾀는다. 어떠한 이익인가?

첫째로, 13절에 보화를 얻는다고 한다. 보화가 얼마나 귀한가? 보화는 다른 물건들에 비하면 질적으로 아주 귀한 것이 아닌가. 이 보화를 얻는다는 것은 악한 자의 꾀에 합세할 때에 내가 얻어지는 이익의 질적인 면을 말한다. 그들의 꾀를 좇아 그들과 합세하면, 질적으로는 귀한 보화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같은 13절에 온갖 보화라고 하였다. “온갖”은 그들과 합세하여 얻어지는 이익의 가지수나 품종을 말한다. 그들의 꾀를 좇아 그들과 합세하면, 질적으로 귀한 보화를 한 가지만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지수로도 어느 한 가지라도 빼놓지 않고 온갖 보화를 다 얻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로, 14절에서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고 하였다. 원어대로는 우리 모두가 다 전대 하나를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제비를 뽑다가 더러 당첨이 안 되는 수도 있으나 본문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제비를 뽑을 때 더러는 당첨이 안 되는 자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제비 뽑는 전원이 다 당첨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틀림없이 다 한몫씩 차지하게 된다.

넷째로, 13절에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게 된다고 한다. 이것은 악한 자의 꾀를 좇아 합세할 때에 얻어지는 이익의 양적인 면을 말한다. 제비를 뽑아 당첨되되 보잘것없는 작은 양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채울 정도로 많이 가지게 된다고 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제안인가. 악인의 꾀를 좇아 그들과 합세하기만 하면 질적으로는 가장 귀한 보화를, 가지수로는 어느 한 가지도 빠짐 없이 온갖 보화를, 제비를 뽑되 어느 한 사람도 낙선되는 자가 없이 전원이 다 당첨되고 그리하여 양적으로는 그들의 집을 채우게 되니 웬만하면 이 꾀에 합세 안 할 자가 누구이겠는가. 그러나 성경을 다시 보자. 뭐라고 하는가? “내 아들이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잠 1:15)고 했다. 즉, 범죄할 계기나 기회가 생겨도, 더구나 이익이 보장되는 범죄의 계기가 생긴다 하더라도 죄를 피하라고 하였다.

잠 6:25에, “네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고 하였다. 이 말씀의 상반절인 “네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는 내편에서 음녀의 아름다운 색을 탐하는 것이요, 하반절인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는 음녀편에서 눈을 가지고 너를 흘릴 때, 즉 음녀편에서 먼저 범죄할 계기를 마련하고 달라붙는 때에도 그 흘림에 말려들지 말라는 뜻이다. 내편에서 범죄 안 하려고 애쓰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다. 그런데 내편에서만 범죄 안 하려고 한다고 다 되는가? 내편에서는 범죄를 안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음녀편에서 먼저 범죄할 계기를 마련하고 달라붙는 때에는 웬만한 사람은 넘어지기 쉽다. 그런데 본문은 음녀편에서 먼저 범죄할 계기를 마련해 가지고 유혹하는 때에도 그 유혹에 흘려들지 말라고 한다.

신 13:1~3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네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좇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를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는 범죄할 계기가 두 가지 있다. 그 하나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네게 말하

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가서 좇아 섬기자고 하는 일
이요, 다른 하나는 그보다 더 강한 유혹인데, 즉 그들이 보인 이적과 기
사가 그 말대로 다 이루어지는 경우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그들에게 보이며 다른 신들을 섬기자는 유혹도 크지만,
그들의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더 큰 유혹이다. 이
러한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유혹에 말려들어
가서는 안 된다는 경고다. 이어서 신 13:6~9에는 “네 동복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피어
이르기를, 너와 네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에 둘러 있
는 민족, 혹 네게서 가깝든지 네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
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좇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숨기지 말고, 너는 용
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못
백성이 손을 대라.”고 하였다. 여기에는 신 13:1~3 때보다 더 거절하기
힘들 경우다. 우리를 피는 사람들이 제삼자가 아니다. 다 나와 더불어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 특히 피를 같이하고 있는 자들이다. 같
은 배에서 나온 형제, 내 자녀, 더욱 내 품의 아내, 그리고 피는 다르다
하더라도 피를 같이함과 다를 바 없는, 생명을 함께 하는 친구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며 이르기를,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할 때
에는 거절하기가 쉬우나, 후자들이 유혹할 때에는 매우 거절하기 어렵
다. 그러나 아무리 거절하기 어려운 밀접한 관계를 가진 자들이 너를 찌
다 하더라도 그들의 꾀를 좇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다.

마 24:23에 “그 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하였고, 눅 17:23에는 “사람
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
희는 가지도 말고 좇지도 말라.”고 하셨다. 이 말씀들도 다 우리에게 범
죄할 계기가 어떤 경우임을 정보를 제공해 주는 말씀이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우리에게 유혹해 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의 꾀를 좇아서 안 된다고 하였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성경에는 상대방에서
마련해 가지고 오는 범죄의 계기에 말려들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복된
사람이 못 된다. 잠 7:10~22에는 음녀가 온갖 준비를 다 갖추고 남자

를 유혹하려 나오는 모습을 말한다. 특히 13절에는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를 유혹한다고 하고 21절에는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의 호리는 말로 핀다고 하였다. 이 유혹에 빠져 소년이 그를 따랐다고 한다(잠 7:22). 이 소년은 음녀편에서 범죄할 계기를 마련해 가지고 접근하는 유혹에 넘어간 것이다. 그러기에 복된 자가 될 수 없었다.

잠 16:29에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꺾어 불선한 길로 인도하느니라.”고 하였다. 이웃을 꺾어 불선한 길로 인도하는 강포한 자가 있다. 그런데 복 있는 자는 이웃을 꺾어 불선한 길로 인도하는 강포한 자의 꺾을 좇지 않으나 강포한 자의 꺾에 영향을 받는 자들도 있다. 마련해 놓은 범죄의 계기에 말려드는 사람들이다. 잠 17:4에 “악을 행하는 자는 꾀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고 하였다.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가 무슨 뜻인가? 즉 악한 혀를 물리치지 않고 악한 혀에 관심을 두고 뜻을 두고 함세한다는 뜻이 아닌가. 복 있는 자는 바로 이러한 일을 안 하는 사람이다.

하와도 뱀이 제공하는 꺾에 넘어갔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창 3:4~5)고 하였다. 악한 자가 우리를 꺾 때에는 대개 그러하듯이, 여기에서 뱀이 하와를 꺾 때에도 그의 말대로 하면 유익이 있을 것이라는 미끼를 내걸고 유혹했다. 뱀의 유혹에는 두 가지 미끼가 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이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어도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대로 형벌이 없겠다는 미끼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는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죽지 않을뿐더러 더 좋은 결과에 이르리라는 미끼다. 복 있는 자는 이러한 제안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제안에 따르지 않는데 하와는 그만 이 유혹에 따르고 말았다.

왕상 1:7에 “아고니야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저희가 좇아 도우나...”라는 말씀이 있다. 다윗이 늙어 임종이 가까웠을 때 아도니야가 왕이 되려고 먼저 손을 썼다. 그런데 왕상 1:30에 보면, 옛날에 다윗이 벌써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기를, 솔로몬이

자기를 이어 왕이 되리라는 사실을 밝혔다고 한다. 그러니 솔로몬이 의례히 왕이 되어야 하는데 아도니야는 아버지 다윗의 뜻을 거스려 자기가 왕이 되려고 미리 손을 썼다. 그리하여 이 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더불어 모의했다. 요압과 아비아달은 아도니야의 계획이 다윗의 뜻을 거스린 음모인 줄 알면서도 아도니야의 제안에 동조했다. 즉, 악인의 꾀를 좇았다. 복 있는 자는 이러한 일을 안 하는 자다.

왕상 11:4에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라는 말씀이 있다.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는 바로 왕비들이 솔로몬 왕에게 범죄할 계기를 강하게 제공했다는 말씀이다. 복 있는 사람 같으면 이 강한 범죄의 계기가 있을지라도 거기에 동조 안 했을 것인데 솔로몬은 그만 그들의 이 제안에 따르고 말았다. 불행한 일이다.

반면에 성경은, 범죄의 계기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동조하거나 합세하지 않고, 시 1:1에 있는 대로 강하게 물리친 아름다운 경우들도 나온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창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경우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천 번 만 번 그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일곱가지 요소가 있었다.

첫째는, 당시 그의 나이가 28세의 노총각이었다는 사실이다. 일찍 결혼하여 결혼 생활을 충분히 경험한, 더구나 인생이 다 지나간 80 넘은 노인이 아니라 28세의 노총각이니 여자하면 화약에 불을 당기는 것과 같은 강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이다.

둘째로, 여자편에서 먼저 유혹해 왔다는 점이다(창 39:7). 나이 28세의 노총각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또 내편에서 여자에게 눈짓을 한다 하더라도 여자편에서 일체 응하지 않으면 힘이 들겠으나 요셉의 경우는 그것이 아니라 여자편에서 먼저 눈짓을 했다는 점이다. 요셉이 그 눈짓에 응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범죄할 가능성이 충분했었다.

셋째로는, 비록 여자가 먼저 눈짓을 해 왔다 하더라도 그 여자가 천한 여자라면 별로 마음이 동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는 바로의 시위대장의 아내이니 분명 귀부인이다.

보디발의 아내가 미인인지 아닌지는 성경에 근거가 없으니 말할 수 없으나 그가 시위대장의 아내라는 점을 생각할 때 그가 귀부인이었다는 사실은 얼마든지 자신있게 주장할 수 있다.

넷째로는, 비록 그녀가 아무리 귀부인이었다 하더라도, 이미 나이 많은 할머니 같으면 또 몰라도 그가 할머니가 아니다. 왜? 그가 할머니가 아니라는 점은 두 가지 면에서 확실하다. 그의 남편 보디발은 현직에 있는 사람이고 이미 현직에서 은퇴하여 나이 많은 늙은이가 아니고, 현직 시위대장이라면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나이요 결코 은퇴해야 할 늙은이는 아니다. 그리고 그녀가 할머니가 아닌 또 하나의 증거는 그가 요셉에게 눈짓한 것을 보아 그가 아직 생리 현상이 정상인 즉 성욕을 가진 여자라는 사실이다. 할머니가 어떻게 성욕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는 아직 성욕을 가진 여자이지 성욕의 충동을 느낄 수 없는 할머니가 아니다. 그러니 요셉에게 충분한 범죄의 계기가 되었다.

다섯째로, 화장을 있는 대로 다 하고 요셉에게 눈짓을 했을 것이다. 우리는 창 50:1~3을 보아 그 당시의 애굽의 의학 기술과 향 사용법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 더운 나라에서, 냉장 시설도 없는 곳에서, 야곱의 시체를 관에 모시는데 40일이 걸렸다고 하니 향 재료 사용법이 얼마나 고도로 발달했기에 그러하였겠는가. 그 점을 보아 당시 애굽 나라의 향 재료 사용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는데 보리발의 아내도 애굽의 향품 사용의 기술을 총동원하여 향품과 화장을 있는 대로 다 하고 요셉에게 눈짓을 했겠으니 그 얼마나 강한 유혹의 계기였겠는가.

여섯째로, 창 39:10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고 한다. 눈짓을 하되 한 두 번 그러다가 말면 또 모르겠으나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니 웬만한 사람 같으면, 28세의 노총각으로서 이 유혹을 물리칠 자가 있겠는가. 열번 짝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는가. 삼손도 들릴라가 날마다 재촉하여 조르는 바람에 드디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가 (삿 16:6). 요셉이라고 정욕을 모르는 목석인가. 그럼에도 요셉은 이 강하고도 집요한 유혹에 응하지 않았다.

일곱째로는, 직접 달려들었다(창 39:12). 다른 때는 눈짓만 하던 그녀가 이번에는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창 39:12) 하였다. 눈짓이 아니다. 체면 불구하고 직접 달려들었다. 목석이 아니고야 천사가 아니고서야 이 유혹을 물리칠 자가 누구이겠는가. 그러

나 이 때에도 그는 강하게 물리쳤다. 악인의 꾀에 끝까지 좇지 않았다. 장하다! 복되다! 시 1:1에 말씀한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씀이다.

느 10:31에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화(物貨)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기로 결의했다는 말씀이 나온다. 이것도 상대방에서 범죄할 계기를 먼저 제공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 계기에 응하지 않겠다는 결의다. 안식일에 내편에서 먼저 물건을 사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경우다. 비록 그런 제안이 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시 1:1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한 말씀이다.

시 26:4~5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 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시인의 옆에는 허망한 사람의 자리가 있었고, 간사한 자들이 있었다. 행악자의 집회가 있었고, 악한 자의 자리가 있었다. 허망한 사람의 자리에 앉고 싶어도 그러한 자리가 없어서 못 앉은 것이 아니다. 간사한 자와 동행하고 싶었는데 그들이 없어서 동행 못한 것이 아니다. 자기가 하려면 얼마든지 그들의 자리에 앉을 수 있고, 동행할 수도 있었지만 시인은 의도적으로 그러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그들과 동행도 안 했다. 시 1:1은 바로 이러한 사람을 두고 한 말씀이다.

사 33:15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피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가 나온다. 이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내편에서 죄를 지으려고 적극적으로 나선 자들이 아니다. 다 상대방에서 먼저 범죄할 계기의 제공을 받은 자들이다. 그에게 뇌물을 가져왔다. 피를 흘리자고 한다. 내편에서 보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악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손을 흔들어 의도적으로 뇌물을 받지 않고, 의도적으로 자기의 귀를 막고 피를 흘리자는 피를 듣지 않고, 의도적으로 눈을 감아, 보려고 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악을 안 보는 자들이다. 범죄하려면 범죄할 수 있는 계기가 얼마든지 주어져도, 의도적으로 그 계기에 응

하지 않는 사람이다. 시 1:1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한 말씀이다. 시 1:4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하였다.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날리고, 저리 불면 저리 날리는, 바람결이 부는대로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악인이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바람결이 어디로 불든지 간에, 그 바람결이 죄의 바람결이라면 이 바람결따라 결코 응하지 않는 사람이다. 악인의 꺾이는 바람결, 죄인의 길이라는 바람결,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바람결이 아무리 정신 없이 불어와도, 이 바람결에 동요하지 않고 합세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3) 꺾는 사람들이 많더라도 그 많은 사람의 꺾에 응하지 않는다

본문 1절의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히브리어에서 복수다. 그러니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다. 특히 악인의 꺾는 복수인 악인들의 꺾니 복 있는 사람을 꺾는 자들이 많다. 사람을 꺾 때나 권면할 때에 한 사람의 꺾이나 권면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꺾이나 권면이 더 유력하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시인하여 마 18:15~16에서 말씀하시기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고 하셨다. 너 혼자서 말을 안 들을 때 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고 하셨는가? 한 사람의 말보다는 두세 사람의 말이 그만큼 더 유력하고, 좋은 일에만 아니라 남을 꺾는 일에도 그렇다. 민 22:15에 보면,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냈다고 한다. 모압 나라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꺾기 위하여 처음에 보냈던 사자들보다 더 많은 사자들을 보냈더니 그 수에 영향을 받아 처음에는 거절했던 발람이 두 번째는 따라 나서게 되었던 것이다. 수에 영향이 있지 않은가. 사 16:6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며 죽을 지경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들릴라가 삼손을 꺾 경우인데, 삼손을 꺾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 아니고, 날마다 꺾므로 꺾는 빈도수가 많아진 것이다. 비록 꺾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은 아니지만, 그 빈도수라도 많아지는 때에 드디어 삼손이 넘어지지 않았던가. 꺾는 빈도수가 적을 때에는 안 넘어가던 삼손이 꺾는 빈도수가 많아지는 때

에 드디어 넘어갔으니 역시 수에 영향을 입었다. 잠 7:21에는 음녀가 남자를 쫓을 때에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도 꾀는 사람이 많아진 것은 아니다. 들릴라의 경우와 같이 꾀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여러 가지 고운 말이니, 꾀는 회수가 많아진 것이다. 비록 꾀는 사람이 많아진 것은 아니나 꾀는 회수가 많아지자 소년이 곧 그를 따랐다고 한다(잠 7:22). 역시 수에 영향을 입은 것이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를 꾀는 악인의 수가 많아서 많은 악인들이 그를 쫓다 하더라도 그 수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것이다. 잠 1:10에 “내 아들이야, 악한 자가 너를 쫓더라도 좃지 말라.”고 하였는데 여기의 악한 자도 히브리어로는 복수다. 즉 악한 자들이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도 11절에는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하면서 복수로 나왔다. 너를 꾀는 자가 악한 자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악한 자들이 합세하여 너를 쫓다 하더라도 그들을 좃지 말라고 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다.

(4) 유혹의 양태가 달라져도 거기에 불응하는 자다

본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을 유혹하는 양태가 세 가지로 변한다. 첫째는 악인들의 꾀이 있더니 그다음에는 죄인들의 길이 있고 그것이 지나자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복 있는 자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복 있는 자는 그를 유혹하는 양태가 어떻게 바꾸인다 하더라도 그 어느 양태에도 응하지 않는다.

성경에 보면 한 번 유혹에는 이겼으나 그다음에 유혹의 양태가 달라지는 때 꼼짝 못하고 굽히고 만 경우들이 있다. 민수기 22장의 발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처음에는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그에게 왔다. 그러나 이 첫번 유혹에는 발람도 잘 물리쳤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 유혹, 즉 유혹의 양태가 바뀌는 때였다. 그다음에는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냈다(민 22:15). 첫번보다 질적으로는 더 높은 귀족들이요, 수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었다. 유혹의 양태가 바뀌자 그만 발람도 이에 응하고 말았다. 열왕기 상 13장에 보면 여로보암이 벳엘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 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벳엘에 이르러 여로보암

을 꾸짖었다. 그리고 이적도 나타났다.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그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왕상 13:7)고 하였다. 그러자 그 선지자가 대답하기를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고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왕상 13:8~9)하고 다른 길로 갔다. 그리하여 첫번 유혹은 잘 물리쳤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다음이 문제였다. 유혹의 양태가 바뀌었다. 벧엘에 살던 늙은 선지자가 양태를 바꾸어 그를 꺾는 때에 그만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넘어지고 말았다. 매우 유감스럽다.

반면에 욥과 예수님은 유혹의 양태가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 그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욥 1:13~19 사이에 욥은 여러 가지 형태의 시험을 받았다. 그런데 욥 1:22은 무어라고 했는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이다. 이 모든 일이 무슨 말씀인가? 각각 시험의 형태를 달리한 여러 가지 시험의 형태가 아닌가. 형태를 달리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시험에도 욥은 범죄하지 않았다는 말씀이다. 즉, 시험의 형태가 이렇게 저렇게 바뀐다 하더라도 그는 아무런 영향을 안 받았단 말씀이다. 욥기 2장에 와서는 시험의 형태가 또 달라졌다. 이번에는 그 몸에 악창이 났다. 시험의 형태가 또 달라졌다 하더라도 성경은 다시 말하기를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욥 2:10)이다. 이와 같이 욥은 시험의 형태가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 계속 영향을 받지 않았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다. 마 4:1~11에서 마귀는 시험의 형태를 각각 달리하면서 세 가지 모습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서는 마귀의 시험의 형태가 어떻게 바뀐다 하더라도 그 시험에 들지 않고 끝까지 이기셨다. 복 있는 사람이 죄를 물리치는 일도 바로 이러하다.

살전 5:22의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잘못된 번역이다. 원문에는 “모든 악의 모양에서 피하라.”이다. 그래서 표준 성서는 원문대로 바로 번역하여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여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악이라고 하면 어떤 모양의 악이든지, 그 모양이 세모꼴이든지, 네모꼴이든지, 둥글든지, 모가 났든지, 다 피하

라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부연하면 악의 모양이 어떻게 변화하든지 다 피하라는 뜻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 복 있는 사람은 살전 5:22의 말씀대로 악의 모양이 어떻게 바뀐다 하더라도 그 모양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끝까지 이겨내는 사람이다.

(5) 범죄자들의 다수의 영향에 좌우되지 않는 자

위에서도 말씀한 대로 본문의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히브리어에서는 다 복수다. 그러니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수가 많다. 그러니 웬만한 사람이라면 수가 많은 사람들 편에 합세하기 쉽다. 그것은 인정의 상사다. 그러기에 성경도 이러한 사실들을 보여 주지 않았는가.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천사에게 소돔성의 멸망을 막아보려고 그 성중에 거하는 의인 50명에서부터 10명까지 계산해 내려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성중에 의인 10명도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드디어 소돔성은 망할 수 밖에 없었다. 무엇을 보여 주는가? 소돔성 전체가 다 악하니 그 악의 홍수에 휩쓸려 너도 나도 다 악을 행하는 다수에 가세했던 사실을 보여 주지 않았는가.

10명은 또 많기나 하다. 좀더 수를 줄여 보자. 렘 5:1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성을 사하리라.”고 하셨다. 선지자 예레미야 때에는 예루살렘 전체가 다 악하였다. 그러나 그 악한 성중에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예루살렘 성이 망한 것을 보면, 그 성중에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다. 무엇을 뜻하는가? 소돔성과 같다. 예루살렘 성 전체가 다 악하니 그 악을 행하는 다수에 영향을 받아 너도 나도 다 그 악의 홍수에 휩쓸려 동화된 사실을 보여 주지 않는가.

그러기에 성경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미 경고하였다. 출 23:2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라고 하였다. 왜? 많은 사람이 악을 행하면 웬만한 사람이면 그 다수를 따라 나도 함께 악을 행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송사에 부정당한 증거를 하면 나도 그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에 가세하기 쉬

운 것이 보통 사람의 의지이다. 그러나 성경은 강하게 말한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다 악을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너는 그 수에 영향을 받아 함께 악을 행하지 말고 비록 많은 사람들이 당을 지어 송사에 부정당한 증거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너는 그 수에 영향을 받아 그들에게 가세하지 말라고 한다. 백 번 옳은 말씀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악한 일인 줄 알면서도 그 쪽으로 가는 사람이 많다고 하여 그들과 합세할 수 있으며 송사에 부정당한 증거인 줄 알면서도 다수가 그 쪽에 있다 하여 그 수에 영향을 받아 그 다수에 합세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그러기에 출 23:2은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지 않는가.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출 23:2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다. 비록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많다 하더라도, 그 수에 영향을 받아 그들 편에 서지 않는 자다. 잠 1:15에 “내 아들이,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고 하였다. 여기에 나오는 그들은 잠 1:10, 11에 나오는 악인들이다. 위에서도 말씀한 대로 잠 1:10의 악인이 히브리어에서는 복수 즉 악인들이다. 우리를 꾀는 자는 악인들이다. 다수다. 다수의 악인들이 우리를 꾀다 하더라도 그 꾀에 응해서는 안 되며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고 한다.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는 것은 바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다고 하여 그 다수에 영향을 받아 악을 행하는 다수에 가담하지 말라는 말씀이다.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악을 행하는 사람의 수가 많다고 하여 그 수의 영향에 좌우되거나 악을 행하는 다수에 가담하지 않는 자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 7:13~14에 이 사실을 경고하셨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 이니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하여 그 수에 영향을 받아 천국 백성인 너희들도 다수를 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함께 갈 것이냐? 결코 그 래서는 안 된다. 천국 백성인 너희들은 다수라는 수에 영향을 받지 말라. 비록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하더라도 너희는 그 수에 영향을 받지 말고 찾는 이가 적다 할지라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라는 것이 예수님의 교훈이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마

7:13~14의 예수님의 교훈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의 주위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다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수에 영향을 받아 그들과 합세하지 않고 오직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강하게 걷는 사람이다.

성경에 이런 복된 사람들이 나온다. 노아가 그러하다. 창 6:11에 보면, 노아 당시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했다고 하니 노아의 8 식구 내놓고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하였다. 나 하나 빼놓고 온 세상이 다 악하니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 악의 홍수에 밀려 나도 함께 동화되기 쉬울 터인데 노아는 다수 정도가 아니라 전부가 다 악하다 할지라도 그 수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나 홀로라도 의의 길을 굳게 지켰으니 본문에 말씀한 복 있는 사람은 바로 노아와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씀이다. 출애굽기 32장에서는 모든 백성이 다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다. 그러니 웬만한 사람이라면 다 이 다수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레위 지파만은 이 범죄의 다수에 가담하지 않고, 여호와의 편에 서 있었으니(출 32:26)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 레위 지파와 같은 사람이다.

왕상 19:10에서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이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온 이스라엘이 다 우상을 섬기며 더욱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는데 웬만한 사람이면 엘리야도 세월 흘러가는 대로 그들과 합세할 만한데 그는 이 다수에 영향을 안 받고 자기 홀로라도 여호와의 도를 지켰으니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씀이다.

겔 9:4에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는 말씀이 있다. 무슨 말씀인가? 에스겔 8장을 보면 선지자 에스겔 당시 예루살렘 성을 구석구석 범죄치 않은 곳은 없었다. 그러나 그 다수가 범죄하는 범죄의 소굴 속에서도 범죄하는 그 다수에 동화되지 않고 그 성중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이 있었다. 즉 본문에 나오는 대로 범죄하는 다수에 영향을 받아 그들에게 휩쓸리지 않는 사람들이다.

계 3:1~2에 주님께서서는 사대 교회를 향하여 “네가 살았다 하는 이

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라고 책망하셨다. 이것이 사대 교회의 정체였다. 그런데 이 사대 교회의 다수에 영향을 안 받은 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라고 했는데 이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고 했다. 이들이 누구인가? 온 교회가 죽고 하나님 앞에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다수 뿐인데 그 다수에 영향을 안 받고 그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바로 시 1:1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들이다.

(6) 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해야 할 일을 함으로 죄를 피하는 자다

시 1:1의 악인의 꾀를 좇는 일, 죄인의 길에 서는 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일들은 안 해야 되는 일들이다. 그러기에 복된 사람은 그러한 일들은 안 했다. 시 1:2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복된 사람은 그 일을 했다. 우리가 안 해야 될 일을 하면 죄가 되고,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죄가 되는데, 복된 사람은 안 해야 할 1절의 일들은 안 하고, 해야 할 2절의 일을 함으로 죄를 피할 수 있었다. 시편 15편에 주의 장막에 유하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를 논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자격들이 나온다. 그런데 요약해서 말하면 주의 장막에 유할 자는, 즉 해야 할 일들은 하고, 안 해야 할 일들은 안 한 사람이다.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일삼고,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일들은 해야 할 일들이고, 그 혀로 참소하며, 그 벅에게 행악하고, 그 이웃을 훼방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을 해로워졌다고 하여 변하고, 변리로 대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는 일들은 해서 안 될 일인데, 주의 장막에 거할 자는, 위에서와 같이 해야 할 일들은 하고, 안 해야 할 일들은 안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그도 복된 자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인들은 해서 안 될 일을 행하고 해야 할 일들은 하지 않은 자들이다. 열왕기하 17장은 북국 이스라엘이 망한 사실과 그 원인들을 기록했는데 12절을 보면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일이라.”고 하였고, 15절에는 “... 허무한 것을 좇아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시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 그 하나님 여호와와 모든 명령을 버리고”라고 하였다. 무슨 말씀들인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들을 그들이 행했기 때문에 죄가 되었다는 말씀이다.

잠 1:22에는 안 해야 될 일들을 여전히 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 너무 안타까워서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고 꾸중했다. 어리석음을 좋아해서는 안 되고 거만을 기뻐해도 안 되며 지식을 미워해서도 안 되는데 왜 그런지 미련하고 거만한 자들은 해서 안 될 일을 한없이 계속하고 있으니 너무 한심해서 지혜가 탄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안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해야 할 일은 함으로 죄를 피한다.

(7) 악을 피하되 아예 멀리서부터 피함으로 악을 피하는 데 성공한 사람이다

한글 성경의 “악인의 피를 좇지 않음”은 히브리어대로는 “악인의 피 안에서 걸어가지 않음”이다. 그러니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 안 하는 행동 세 가지는 걸어가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음이다. 악인의 근방에 아예 걸어가지도 않아야 그 근방에 서지 않게 된다. 악인의 근방에 아예 걸어가는 일도 없는데 어떻게 그 근방에 서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혹시 그 근방이 악인의 동네인 줄 모르고 걸어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예 서지도 않아야 앉지 않게 된다. 서지도 앉았는데 어떻게 앉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거꾸로 말하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려면 아예 그 근방에 서지도 말아야 하고 서지 않기 위해서는 아예 그 근방에 가지도 말아야 한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먹 근처에 가까이 가서 검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아예 먹 근처에서 멀리하면 검어질 염려가 전혀 없게 되지 않은가. 복 있는 사람은 죄를 피하되 그 방법까지 지혜롭게 하여 피한다. 죄 근처에 가까이 가서 죄를 피하려는 미련한 일을 안 하고 죄라면 아예 먼데서부터 피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취한다.

성경 다른 곳에서도 복 있는 사람이 죄를 피하는 이 지혜롭고 효과적

인 방법에 대하여 가르친다. 잠 4:14~15에는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라고 하였다. 사악한 악인의 집 근처에 가까이 가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 말고 죄를 안 짓기 위해서는 아예 사악한 악인의 길에 다니지도 말라고 하였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고 돌이켜 떠나가라고 하였다. 즉, 죄는 멀리서부터 피하라고 하였다. 잠 5:8에는 음녀의 꾀에 들지 않게 되는 방법으로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였다. 음녀의 집 근처까지 가서 음녀의 유혹을 피하려는 자는 먹 근처에 가서 검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쉼을 지고 불 근처에 가서 타지 않기를 바라는 미련한 방법이다.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아예 우리들의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고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한다. 잠 23:31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라고 하였다. 포도주 병을 가슴에 안고 포도주의 색깔을 탐스럽게 바라보면서 포도주를 안 마시려고 애쓰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 아예 그것을 보지도 말아야 한다. 잠 24:1에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라고 하였다. 악인과 함께 살면서 악인과 가까이 지내면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으려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못 된다. 악인과 함께 있지도 않고 따라서 악인을 보지도 않는 데야 어떻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수 있게는가? 할 수 없는 일이다.

민수기 6장에는 나실인의 규례가 나오는데 그 나실인은 그 몸을 구별하여 성결케 하는 날 동안 일체 포도주를 금해야 하는데 그 일에 대하여 민 6:3~4에 이렇게 말한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은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라고 하였다. 포도주나 독주 자체를 멀리하는 것은 물론 포도주에 가까운 초나 즙도 마시지 말고 포도주로 만들기 전의 생포도도 먹지 말고 포도나무 소산은 씨나 껍질까지도, 즉 아예 멀리서부터 피하라고 하였다.

예레미야 35장에는 레갑의 자손들이 포도주를 안 마신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데 그 조상이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할

때에 아예 포도원을 재배치도 말라고 하였다(렘 35:7).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 후손들은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않았다고 한다(렘 35:9). 아예 포도원을 재배도 안 하고 씨도 안 두는데 어떻게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겠는가? 그들의 조상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게 할 수 있는 지혜롭고도 효과적인 교훈을 주었고 그들의 후손들도 포도주를 안 마실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 즉 아예 멀리서부터 피하는 방법을 그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포도주 안 마시는 일에 성공할 수 있었다.

성경에 보면 죄를 피하는 일에 성공한 사람은 다 멀리서부터 피하는 방법으로 성공하고, 실패한 사람들은 이 방법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할 수 있었던 비결을 10절은 이렇게 말한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즉, 멀리서부터 피했던 말이다. 요셉이 목석인가? 요셉이라고 하여 정욕이 없는 사람인가? 가까이 있다 보면 보디발의 아내의 강한 유혹에 드디어 감전될 수밖에 없을 터인데 그는 아예 함께 있지도 않는, 즉 멀리서부터 피하는 방법으로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다.

반면에 이 방법을 취하지 않은 자는 실패하고 말았다. 삼손이 왜 실패했는가? “이 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의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삿 16:4)이다. 들릴라를 사랑하여 가까이 하다 보니 그 울무에 걸려 자기의 비밀을 고백 안 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머리를 깎아주고, 눈이 빼이고, 낫줄에 매여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는(삿 16:21) 비참한 자리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 모든 비참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였는가? 들릴라를 가까이 한 데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즉, 멀리서부터 피하지 않은 까닭이었다. 들릴라를 가까이 안 했었던들 그의 비밀을 고백해야 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머리를 깎이거나 눈을 빼앗기는 일도 없지 않았겠는가. 잠언 7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소년이 음녀의 핏에 빠지게 된 일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8절부터다.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 때이다. 그가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지도 않는데 음녀가 그를 꾀었던 말인가? 아니다. 섶을 지고 불로 들어갔고, 먹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갔던 것이다.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지도 않았던들 음녀를 만날 리도 없고, 따라서 유혹을 받았을 리도 없지 않았겠는가. 탈은 음녀의 골목 모퉁이

로 가까이 간 데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소극적인 면, 즉 죄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 피하는 일이다. 그런데 소극적인 면만 가지고 다 되는가? 무슨 일이고 소극적인 면만 가지고는 그 효과를 절반밖에 나타낼 수 없다. 이것은 성경 안에서나 성경 밖의 세상에서도 똑같이 통하는 원리다. 전쟁에 있어서도 성을 지키는 사람이 다만 성을 지키기만 하는 소극적인 방법만 취하면 그 성은 어느때인가는 함락되고야 만다. 기회를 봐서 성문을 열고 나가서 성을 포위한 적군과 싸와 물리쳐야 성을 지키는 일도 효과적으로 잘 지켜진다. 그러기에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란 말도 있지 않은가.

성경에서도 이 원리를 강조한다. 죄를 안 지으려면 죄를 안 지으려는 소극적인 자세만을 취하지 말고 적극적인 방법을 취해야 하는 사실을 성경 여러 곳에서 가르친다. 그 사실을 여기에서 다 들자면 한이 없으니 다만 간단한 보기로 잠 3:1을 보자. 거기에 “내 아들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였다. 상반절에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잊어버리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자세만 가지고는 잊어버리지 않는 일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 잊어버리지 않는 일을 효과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으로 그 명령을 지키는 일이다. 자동차 운전 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운전법을 다 잊어버리기 쉽다. 운전법을 잊어버리지 않는 비결은 운전 면허를 받는 즉시 곧 실제로 차를 몰고 다니는 일이다. 이것이 운전법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일이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죄를 안 지으려는 소극적인 면만 취하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적극적인 면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호 계속)